

중소기업 M&A 지원과 인센티브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2022년 KOS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는 735만2787개로서 중소기업이 99.87%인 734만3521개이고, 나머지 0.13%는 대기업이 3966개, 중견기업이 5306개다. 2021년 중기벤처부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2286만5491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9.1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분류기준에서 보면, 대기업은 보통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고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에서 5조원 미만인 기업이 중견기업,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지칭한다.

기업이 창업과 설립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내적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수합병(M&A)

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외적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 된다.

M&A 관련 필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M&A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제일 크고, 다음이 중소기업 간 M&A이며, 대기업 간 M&A 성과가 가장 낮다. 이의 결과가 우리의 경제 현실에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사업기회가 결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간 M&A는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규모경제 달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건 중소기업 간 M&A이다. 앞의 KOSIS 자료에서 보듯이 13만개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고 있는 세제와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상실하는 데에 있다. 세제의 대표적인 예가 최저한 세율이다. 중소기업에는 7%의 최저한 세율이 부과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친 후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면 중견기업에서 3년간 8%, 그리고 4년차 및 5년차에 9%로 최저한 세율이 증가한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최저한 세율의 혜택 유지 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입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중소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지난 6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 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게는 2년을 추가하여 총 7년까지 중견기업 지정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상기 중소기업 유예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수가 얼마나 늘어날까?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수를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M&A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정책 마련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간 M&A 정책자금지원과 함께 후속 지분투자 제공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유예조치를 10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M&A가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꾀함을 잊지 말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1월 6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음주는 결정적으로 파탄을 가져온다. 48년생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긴다. 60년생 기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 72년생 자책하지 말라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8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소 37년생 남에게 잘하는 것도 대접받을 일. 49년생 약간의 머구름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61년생 눈앞의 실속 챙기려다 큰 것을 놓친다. 73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85년생 배움에 타인의 시선에 얽매지 마라.

호랑이 38년생 재나간 일에 관심 두지 마라. 50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다. 62년생 지치고 힘든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74년생 희망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열심히. 86년생 재혼한 배우자에게 불만을 내색하면 서로 불륜.

토끼 39년생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라. 51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다. 63년생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하여야 한다. 75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날. 87년생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들다.

말 40년생 흐르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좋다. 52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64년생 태양은 항상 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76년생 사랑에는 병이 왔으나 곧 약도 주어진다. 88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뱀 41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53년생 후배에게 하는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65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인데. 77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조직에서 승진을 이룰 수 있다. 89년생 꿈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말 42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준다. 54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평소 해놓은 공부로 창의력이 빛나는 날. 78년생 물이 깊어지고 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이니 공부. 90년생 구두쇠는 구두쇠지 절약 정신이 아니다.

양 4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55년생 목표가 높아 보여도 용기를 내자. 67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라가 없다. 79년생 먼저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91년생 시시비비 가리다가 자신의 실수도 알려진다.

원숭이 44년생 보이지 않는 헛된 희망이 사람을 지지게 한다. 56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다. 68년생 사람을 믿는 것도 자신이다. 8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92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지는 오후이다.

닭 45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를 기대하니 욕심이 과하다. 57년생 상큼한 소식이 친구를 통해 온다. 69년생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81년생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 내리니 청약을. 93년생 산행에서 원숭이띠를 조심.

개 46년생 뜻밖의 선물이 들어온다. 58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한 휴식. 70년생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하루. 82년생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이니 실력을 쌓으면서 기다려보라. 94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로 다툼 일이 생기는데.

돼지 47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조심. 59년생 모난 돌이 정맞으니 오늘을 지중. 71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주의. 83년생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95년생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뛰는 일을 찾아라.

비만보험과 도덕적 해이



김주형 (금융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7년 '비만에 대한 WHO 자문 보고서'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했다. 2013년에는 미국의사협회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치료와 예방 등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식 인정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한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미적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저 개인의 식탐, 식욕이란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

해 비만 유병률은 남자 45.6%, 여자 27.8%다. 남자의 경우 2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성의 경우 20~30대의 비만 유병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는 지난 2022년 18.2%에서 2023년 22.1%로 3.9%포인트(p) 늘었다. 30대는 21.8%에서 27.3%로 5.5%p나 증가했다. 보험업계가 비만 보험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최근엔 업계 최초로 위고비 등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를 보장하는 신담보가 출시됐고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마쳤다.

다만 보험의 고질병인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 문제가 비만에서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를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비만 치료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고비, 삭센다 등은 '꿈의 치료제'로 불리면서 지난 10월 출시 이후 열풍을 넘어 오남용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비만 치료제가 처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전면 제한하기도 했다.

비만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선별해야 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에서도 아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열풍을 넘어 광풍에 도달한 비만 치료제와 보험의 만남이 또 하나의 사회적 불신으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gh47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카타르시스

억눌려 있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때가 있다. 흔히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문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눈물짓는 사람이 있다. 가볍게 눈물을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소리 내어 울기도 한다. 어디서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속 털어놓으니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아오른다. 필자는 그 순간에 상담받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상황은 연극이나 영화 또는 그림이나 소설 등을 감상할 때다. 작품 속의 비극적인 상황이나 비참함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올라오고 마음에 있던 응어리나 슬픔이 해소된다. 이렇게 위로받고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이 카타르시스다. 순간에 많은 것들이 씻겨 나간다. 서러움 힘겨움 아픔 두려움 걱정 같은 쌓였던 감정이 녹아내린다.

명리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 지금 자기를 즐겁게 또는 힘들게 하는 것을 꺼내놓으며 명리상담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해방감에 숨겨놓았던 감정들과 함께 마음을 토로하는 중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위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는다. 사주와 운세 상담을 마치고 나서는 사람들이 편안한 얼굴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 당장 닦힌 어려운 일도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얻어간다. 마음을 괴롭히던 감정까지 털어내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편해진다. 힘겨움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명리의 이치는 희망과 함께 인생을 무겁게 누르는 돌덩이를 털어내고 힘을 내게 해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결란스도쿠110
중간스도쿠 120

1	8		7			2	4
9		5		4	2		3
						5	
	7		6				9
	3		4		1		9
6			7			3	
	4						
5			6	8		9	2
7	9			6		4	8

6	2		8	4	1	9	5
		4		9		2	3
			2		5		
2	1						7
5							2
	7					9	6
			7		4		
	5	2		1		4	
4	7	3	2	9		6	5

8	7	9	5	1	2	6	4
2	7	6	7	8	9	5	1
4	9	1	5	6	2	8	7
1	5	2	8	4	6	7	9
5	6	9	1	2	7	4	8
6	8	7	5	9	1	4	2
9	5	8	4	1	5	6	2
5	1	2	7	8	9	6	4
4	2	5	6	4	9	8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